

투데이 칼럼

농진청, 지금이라도 수도권 이전 계획 단호히 철회해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남짓, 농촌진흥청이 또다시 수도권 회귀를 기도하고 있다. 일부 핵심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들끓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지역 홀대이자 배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진청은 2015년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내려왔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었다. 전북도민은 농진청과 함께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미래를 그려며 아낌없는 환영을 보냈다.

실제로 농진청은 이전 이후 매년 수천억 원대 연구비를 집행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역 구매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산하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 등 식품·바이오 연구 핵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북이 역점적으로 키워온 식품·바이오 산업의 중추를 송두리째 뽑아간다는 발상이다. 이는 단순한 조

직 이동이 아니라,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비전 자체를 허무는 결정이다. 도의화와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임승식 도의원은 “불과 10년 만에 수도권으로 인력을 빼돌리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발상은 전북을 철저히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격렬히 규탄했다. 농진청은 “연구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이는 알박한 변명일 뿐이다.

국토교통부조차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에 역행한다’며 난색을 보였고, 인사혁신처 역시 직원 의견 조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사회의 우려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수도권 집착 행정’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엔 이전하려는 기능이 전북 미래 산업 전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푸드테크, 발효·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심장부를 다시 수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전북의 산업 기반을 허무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도민의 희생을 밑바탕 삼아 수도권만 살찌우겠다는 중앙의 오만이자 횡포다.

논란이 확산되자 농진청은 “제검토”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철회가 아닌 임시봉합에 불과하다.

도민은 더 이상 기만적인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 ‘제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은 언제든 또다시 수도권 이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불안만 키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의 중심 기관이다. 그 무게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도민은 농진청이 전북에 내려온 것을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그 약속을 파기하고 수도권만 바라보다면, 전북 홀대 논란은 일개 기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금이라도 수도권 이전 계획을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 전북과 함께 농생명 수도를 일궈가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행동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것이 농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적 책임이다. 수도권만 바라보며 지방을 홀대하는 오만과 배신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관 받아도 누구나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며, 119에 신고하면 상 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많은 장소에는 제세동기(AED)가 비치되어 있고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교육과 작은 용기입니다. 소방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참여만으로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구급대원이 아닌 곁에 있는 우리입니다. 전복에서 벌어진 1,460건의 심정지 현장.

그중 200여 명은 누군가의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다음 기적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길웅

부안소방서장



공공장소에 설치된 제세동기(AED)도 실제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단 몇 분의 주저함이 소중한 생명을 놓치게 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구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서 ‘내가 먼저 구조자가 되기’로.

심폐소생술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지역 행사 등에서 시행되는

사설

군산 문효치 시인의 거리

군산 출신 ‘문효치(1943-) 시인의 거리’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효치 시인 거리 지정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산시 육산면 힐방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거리 조성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회칙 의결 및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 군산시에 제출할 청원서에 시민 서명 1000명을 받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효치 시인 거리는 군산의 문학 정체성과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담아내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위는 문 시인의 생가가 있는 육산면 남내리에 ‘육산면행정복지센터까지’를 ‘문효치 시인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시인은 1966년에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문인으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국제 펜(PEN)클럽 한

국본부 이사장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훈장(목관)을 비롯해 정지용 문학상,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상 등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무령왕의 나무재’, ‘계백의 칼’, ‘영인의 수레’ 등 다수의 시집과 시선집이 있다.

문 시인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작계 제자로 알려져 있다. 20대 초반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작품들이 가장 스승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6.25 전쟁 직후 고단한 삶을 살던 문 시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시로 쓰며 당시를 그려냈다고 전해진다. 역사서에 비어 있는 ‘백제’라는 공간을 문학작품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는 현재 시 창작 교실 ‘군산시향당’을 운영하며, 후학을 지도해오고 있다.

2025년 한국휴먼미술협회 정기작품전

‘2025년 한국휴먼미술협회 정기 작품전’이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실에서 열렸다. 출품 작가는 모두 27명이다.

한국휴먼미술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현대미술신문과 재단법인 배영장학회가 후원 협찬했다. 전시는 1986년 이후부터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출신 작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힘 없이 이어져 왔다.

2022년부터는 한국휴먼미술협회라는 이름 아래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소 분야를 통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협회전은 그 동안의 깊이와 연대, 그리고 예술에 대한 애정을 담아낸 소중한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됐다. 예술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한다.

그림 한 장, 조각 하나, 그 속에 깃든 마음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또 다른 이의 내일에 빛을 준다.

한국휴먼미술협회가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더 넓은 세대와 소통하는 열린 예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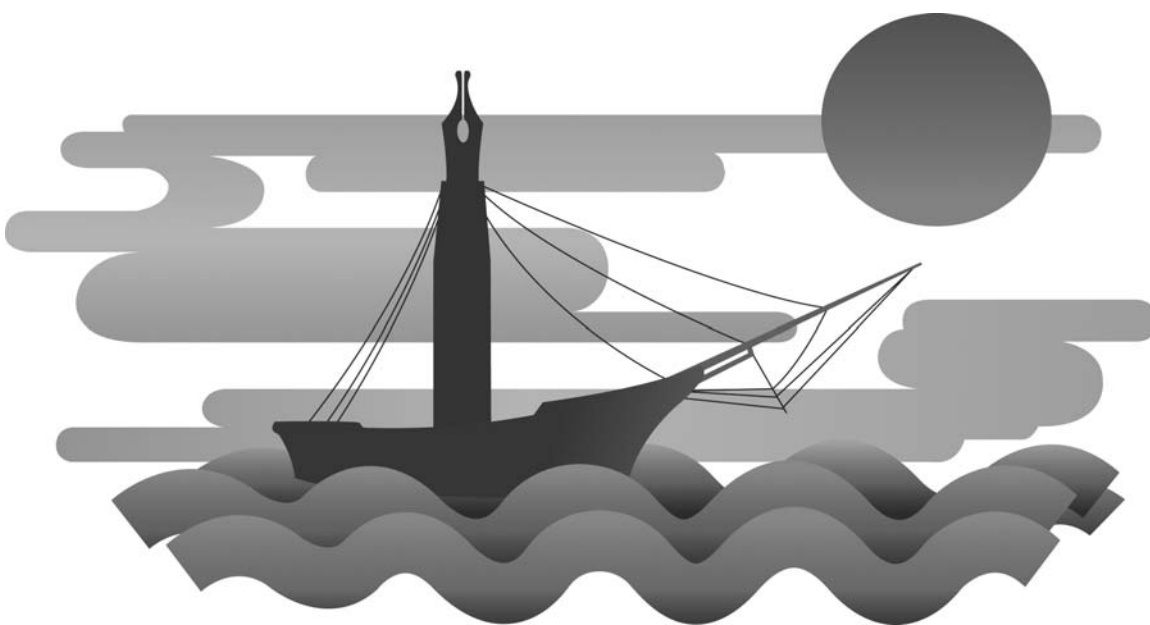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배경 한국휴먼미술협회 회장은 “사람을 향한 예술이라는 협회의 정신이 담긴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의 작품들을 만나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의 가치 중 하나인 삶의 위로와 아름다운 교감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휴먼미술협회가 ‘사람을 향한 예’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마음 깊이 응원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